



안전먹거리 지킴이...유기농 명인을 만나다

(16)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단장 ‘김성래 명인’

“해남이 통합 유기농 교육의 메카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진 역량을 최대한 발휘해 보겠습니다.”



풀무원공동체에서 농업 배워... 전국 최초 친환경 학교급식 일조 하우스 쪽채배로 소비자 신뢰...황토유황 등 통해 병해충 관리



해남 신활력 플러스 사업으로 옛 황산고등학교 자리에 들어선 공동체 혁신파크.(왼쪽) 해남읍 월교마을에서 유기농업을 하는 김성래 명인(가운데). 그가 재배하는 쪽 하우스 내부 모습.

“해남 유기농 산업 메카 조성 힘 쏟겠다”

해남군 해남읍 월교마을에서 유기농산물 재배를 하며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 단장을 맡고 있는 김성래(57) 명인.

그의 유기농업 입문은 지난 19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명인은 풀무원공동체에서 친환경 농업을 접하고 1989년부터 한살림 등에서 6년간 근무했다.

이어 직접 유기농산물을 재배하기 위해 1996년 사계절 농사를 지을 수 있는 해남에 귀농해 호박 고구마 유기농업을 시작했다.

현재는 4만7천620㎡(1만4천여평) 정도에서 고구마를 제외하고 대파, 배추, 쪽, 양파, 시금치 등 다양한 농작물을 모두 유기재배하고 있다.

이중 쪽 재배 면적이 가장 크며 명인의 쪽은 2-5월까지의 원물로 생협에 대부분 납품되고 나머지 기간은 가공해 판매하고 있다.

또한, 쪽은 노지가 아닌 하우스에서 재배되며 하우스에서 재배하는 이유는 관행 농업의 농약 성분 등을 원천적으로 차단해 소비자에게 유기농 재배에

대한 신뢰와 안전을 주기 위해서다.

이러한 농작물 토양 관리에는 바닷물과 녹비작물을 사용하고 황토유황, 천연유황제, 산야초약비, 아미노산, 자리공생즙, 은행 등을 활용해 병해충을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을 수십 년 지속 유지해온 결과, 지난 2019년도엔 ‘전남도 유기농명인’ 제22호로 지정됐다.

이 외에도 명인은 2002년 설립된 (사)부산물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에 반실무자로 참여해 2004년 전국 최초 부·울·

경 지역에 친환경 농산물이 학교급식에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최근에는 해남 신활력 플러스 사업 추진단장을 맡기도 했다.

농촌 신활력 플러스는 2020년부터 4년간 총 7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유기농업과 중소농 육성으로 농업·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사업이다.

옛 황산고등학교 자리에 공동체 혁신파크를 조성해 유기 먹거리 가공공방과 밀키트 공유주방, 생태순환 농업센터,

공동체 혁신교육관 등을 갖춘 공간이다.

다음 달 개소식을 시작으로 내년 초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전국을 가리지 않고 유기농 발전에 진심인 명인의 앞으로 계획은 해남군에 호남 통합 유기농 복합 교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바지하는 것이다.

김성래 명인은 “공교롭게 신활력 사업이 끝나자 해남군이 유기농산업 복합서비스 지원 단지 사업에 선정돼 2028년이면 관련 단지가 조성된다”며 “해

남군이 유기농 산업 메카로 자리잡는 준비단계는 마무리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이어 “신활력 플러스, 복합서비스 단지까지 조성되지만 전남에 유기농을 교육하는 기관이 나눠져 있어 과수, 채소, 배 등 다른 지역으로 가서 배워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며 “모든 교육이 가능한 통합·복합 시설이 군에 들어서 해남이 호남을 대표하는 유기농 산업 메카로 거듭나는 날을 희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태호기자

전남산 과일, 우수성 입증

과일산업대전서 영암 김영기·최병순 농가 최우수 등 4곳 입상

전남도는 27일 “2024년 대한민국 과일산업대전” 대표 과일 선발대회에서 전남산 과일이 최우수상과 우수상 등을 수상, 지역 과일의 우수성을 입증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이번 대회에선 영암 김영기 농가(배)와 최병순 농가(포도)가 최우수상을, 보성 임상철 농가(참다래)가 우수상을, 나주 김만기 농가(배)가 특별상을 수상했다.

김영기 농가는 영암 시종면에서 10개 품종 이상의 배를 28년째 재배하고 있는 베테랑 농업인이다. 품종별 맞춤형 재배 기술로 초록빛 ‘그린시스’배의 뛰어난 당도와 품질을 입증해 신품종 재배 모범 사례로 평가받았다.

최병순 농가는 영암 금정면에서 포도(사인머스켓)를 10년간 재배하며 철저한 토양 관리와 비료 적기 공급을 통해 당도 관리에 주력, 높은 평가를 받았다. 올해 창립된 영암군 포도연구회 회장을 맡아 지역 농가의 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임상철 농가는 참다래 신품종 ‘해금’ 재배를 선도하며 보성 참다래의 품질과 우수성을 입증받았고 김만기 농가는 대학에서 익힌 배 재배 기술과 20년간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거뒀다.

김영석 전남도 식량원예과장은 “올해 폭염과 잦은 호우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지역 과수농가의 대거 수상으로



김영기



최병순

전남산 과일의 품질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명품 과일이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과수산업에 중점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양시원기자

‘자돈 건강관리 시스템’ 효과...스마트 축산 구축 초석 기대

도농기원, 첨단 모니터링 통해 어린 돼지 관리 혁신

전남도농업기술원은 27일 “최근 기후변화와 이상고온 등 다양한 환경에서 자돈(어린 돼지)의 건강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 및 행동모니터링 시스템 도입으로 효과를 입증했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돈사 상단에 설치된 카메라가 자돈의 행동과 환경 변화를 실시간 촬영·분석해 소프트웨어로 전송, 자돈의 활동 패턴을 감지하고 체중 변화 및 식이량 정보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농가는 자돈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상 징후를 조기 발견해 질병 예방과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도농업기술원 연구 결과, 자돈의 체중 증가량은 27-28°C에서 가장 높았

고 온도가 상승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32°C 이상으로 상승하면 자돈의 체중 증가량이 급격히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됐으며 고온 환경이 자돈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됐다.

식이량 또한 온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였다.

자돈은 24-26°C에서 가장 높은 식이량을 기록했으나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식이량은 감소해 28-30°C 구간에서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고온 환경에서 자돈의 식욕이 줄어들어 필요한 영양 섭취가 어려워질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온도 조절이 필수적이라고



돈사 자돈(어린 돼지)모니터링.

강조했다.

김행란 전남농업기술원장은 “이번 연구는 첨단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축산 시스템 구축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농가의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지속 가능한 농업을 실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연구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정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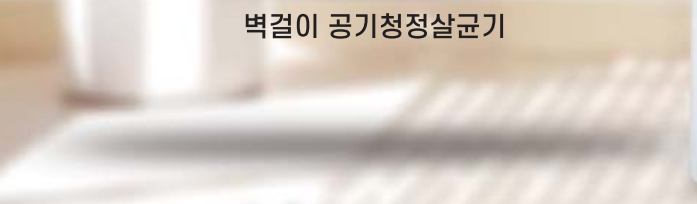
디케이 주식회사

www.e-dk.co.kr

쾌적하고 깨끗한 생활을 위한 스마트 가전이 한 곳에!



스탠드 공기청정살균기



벽걸이 공기청정살균기



제습기



레인지후드



전기쿡탑

공기청정살균기 | 공기청정기 | 공기순환기 | 제습기 | 레인지후드 | 전기쿡탑

판매 및 A/S 문의 1544-1154